

難經中 俞穴篇에 관한 研究

金善鎬 · 金容辰 · 尹暢烈*

I. 緒 論

《黃帝八十一難經》(以下 《難經》이라고 한다)은 《黃帝內經》(以下 《內經》이라고 한다)과 其他의 古醫經類에서 가장 難解하고 核心的인 主題를 가려, 問答을 假設하여 疑難을 解釋하는 方式으로 編纂된 것으로 《內經》으로 代表되는 東洋醫學의 古典的, 原典的인 思想을 各種 臨床活用書들의 哲學的 根幹이 되게 하였고, 오늘날 韓醫學이 臨床治療醫學으로서 人類에 貢獻할 수 있게 한 崇高한 價値가 있는 書籍인 것이다.

《難經》은 예로부터 秦越人(扁鵲)著로 되어 있으나 過去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를 疑心하였다. 왜냐하면 《史記·扁鵲列傳》에 《難經》이 提示된 바 없고, 《漢書·藝文志》에도 이 書가 記載되어 있지 않다. 특히 그 內容으로 볼 때, 讖緯學說인 陰陽五行 神秘化의 影響을 받은 것이 매우 明顯하므로, 이것이 西漢以前의 著作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六朝時에 만들어진 것이라 하였는데, 그 主張은 著作年代를 너무 늦게 본 것이다. 왜냐하면, 《傷寒雜病論·自序》에 이미 八十一難의 名稱이 提示¹⁾되었고, 또 《隋志》에 本書가 일찌기 三國時代 呂廣(呂博, 《玉匱經序》) 呂博은 어려서부터 醫術로 有名하고 診脈論疾을 잘하였다. 著述한 바가 많고 吳나라 赤烏二年에 太醫令이 되었으며 《玉匱鍼經》을 撰하였고 81難經을 註하였는데 當代에 크게 流

行하였다. 搜窠集에는 呂廣이 吳나라 太醫令이며 《難經註解》를 著했다 하니 무엇이 옳은지는 未知다)의 注本에 言及되었음이 記載되어 있다. 卽 그것이 또 東漢以前에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近來의 사람들은 本書를 東漢人의 所作이라고 考證함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難經》에 最初로 註를 한 사람은 三國時 吳의 太醫令 呂廣으로 알려졌으며 以後 數十家의 程註家에 依해 數十種의 註解書가 傳해 온다. 한편 本書에 대한 歷代研究는 대체로 《難經》의 原文을 註解·註釋하여 諸家의 研究를 匯選·補充하고 自己見解를 提出하는 方法과 《難經》原文中의 錯簡과 缺漏를 찾고, 編次를 再整理하여 《難經》原貌를 回復하기 위한 校勘을 試圖하는 方法으로 進行되어 왔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難經》에 대한 研究가 거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難經》中 俞穴篇에 대하여 研究하고자 한다.

《難經》의 特長은 《內經》을 뛰어 넘는 獨創性이 있다.²⁾ 그 中의 한가지가 鍼灸學分野에서의 五輸穴과 原穴, 背俞穴과 腹募穴의 運用과 八會穴鍼灸治療上의 效能을 首唱한 점이다. 이는 62難에서부터 68難까지의 內容으로서 '俞穴篇'이라고도 한다.

筆者는 바로 이 部分을 體系的으로 研究하고자 함이며, 이에 두번째 過程으로서 이 論考를 發表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1)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9, p.20.

2)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관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p.3.

本文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내용을 비교, 연구하기 위하여 各 難별로 原文에 縣吐를 하고 原文에 대한 解釋을 하였으며, 校勘·字句解를 가하였고 各家注를 인용하여 縣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各 難에 관한 考察整理를 하였다.

가. 題目은 《難經校釋》에 依據하여 달았다.

나. 原文은 滑壽의 《難經本義》를 基準으로 삼았다.

다. 出處는 《內經》의 原文을 爲主로 밝히되 《內經》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출처없음’이라고 하였다.

라. 縣吐는 전래의 方式을 원칙으로 하였다.

마. 解釋은 原文의 縣吐에 充實하도록 直譯을 위주로 하되 各 注釋들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위주로 하여 약간의 意譯을 하였다.

바. 校勘은 各 引用文獻 중에서 原文의 글자가 다른 것을 조사하였다.

사. 字句解는 原文 중에서 難解한 부분에 대하여 各 注家들의 의견과 各 解說書들의 意見들을 위주로 비교 설명하였다.

아. 各家注는 아래에 제시할 引用文獻의 注釋을 시대순으로 縣吐하여 제시하였고, 縣吐 이외에 注釋 내용의 이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脚注로 처리하여 제시하였다. 단 中國의 문헌을 앞에 제시한 후에 日本의 文獻들을 제시하였다.

자. 考察은 各家注의 내용들을 토대로 各 難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총괄하여 정리하였다.

차. 考察 중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引用文獻에 대한 설명과 各家에 대한 해설이나 注釋의 보충설명은 脚注로 처리하였다. (各家에 대한 설명은 《難經本義》의 <本義引用諸家姓名>을 참고하였다.)

카. 本 論文에 사용한 부호는 引用文獻

은 《 》, 校勘은 < >, 字句解는 (), 各家注는 [], 脚注는 '로 표시하였다.

다. 強調해야 할 文句가 句인 경우에는 ‘ ’로 強調하였고 節인 경우는 “ ”로 強調하였다.

本 論考에 參考한 《難經》의 注解書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各 注釋書의 시대와 순서는 千柄泰의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중 “難經의 注解書 目錄”³⁾을 參照하였다.

Ⅲ. 研究內容

第六十四難 (井榮俞經合穴의 陰陽五行屬性)

六十四難曰 十變에 又言 陰井木 陽井金 陰榮^①火 陽榮^②水 陰俞土 陽俞^③木 陰經^④金 陽經火 陰合水 陽合土^[1]라하여 陰陽皆不同하니 其意^⑤는 何也^[2]오

然이라 是는 剛柔之事也^{(1)[3]}니 陰井은 乙木⁽²⁾이요 陽井은 庚金⁽³⁾이라 陽井은 庚^⑥이니 庚者는 乙之剛也요 陰井은 乙이니 乙者는 庚之柔也^[4]라 乙爲木이라 故로 言陰井木^⑦也라하니라 庚爲金이라 故로 言陽井金也^⑧라하니라 餘皆倣^⑨此^[5]라

【解釋】

六十四難에 이르기를 十變에 “陰井木 陽井金 陰榮火 陽榮水 陰俞土 陽俞木 陰經金 陽經火 陰合水 陽合土”라고 하여 陰陽이 서로 같지 아니한데 그 의미는 어떠합니까?

답이다. 이것은 剛柔之事이니 陰井은 乙木이고 陽井은 庚金이다. 陽井은 庚인데 庚은 乙의 剛이 되고 陰井은 乙인데 乙은 庚의 柔가 된다. 乙은 木이 되므로 陰井을 木이라하고 庚은 金이 되므로 陽井을 金이라고 한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出處】

3)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pp.40-42.

〈參考 注解書〉

時代	著 者	書 籍	備 考
元	滑壽	《難經本義》	이하 《本義》라고 한다.
明	王九思	《難經集注》	이하 《集注》라고 한다.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이하 《圖註》라고 한다.
清	徐大椿	《難經經釋》	이하 《經釋》이라고 한다.
	黃元御	《難經懸解》	이하 《懸解》라고 한다.
	丁錦	《古本難經闡注》	이하 《闡注》라고 한다.
	葉霖	《難經正義》	이하 《正義》라고 한다.
民國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이하 《匯海》라고 한다.
中國	南京中醫學院	《難經譯釋》	이하 《譯釋》이라고 한다.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이하 《校釋》이라고 한다.
	凌耀星	《難經校注》	이하 《校注》라고 한다.
	王洪圖	《難經》	이하 《中譯》이라고 한다.
臺灣	唐湘清	《難經今釋》	이하 《今釋》이라고 한다.
	黃維三	《難經發揮》	이하 《發揮》라고 한다.
日本	丹波元胤	《難經疏證》	이하 《疏證》이라고 한다.
	膝萬卿	《難經古義》	이하 《古義》라고 한다.
	加藤宗博	《虛經衰腋》	이하 《衰腋》이라고 한다.
	木間祥白	《難經之研究》	이하 《研究》라고 한다.

《靈樞·本輸篇》에 類似한 內容이 보인 다.

【校勘】

①② 榮; 《今釋》, 《經釋》, 《校註》, 《正義》, 《校釋》에는 '榮'으로 되어 있다.

③④ 俞; 《圖註》, 《闡註》에는 '臚'로 되어 있다.

⑤ 意; 《匯海》에는 '義'로 되어 있다.

⑥ 庚; 《圖註》에는 '庚'字가 없다.

⑦ 木; 《圖註》에는 '水'으로 되어 있다.

⑧ 也; 《衰腋》에는 '也'字가 없다.

⑨ 放; 《校註》에는 '放'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剛柔之事; 陰陽相合之事이다. 十天干中 甲丙戊庚壬은 陽에 屬하여 剛이 되고, 乙丁己辛癸는 陰에 屬하여 柔가 된다⁴⁾.

(2) 陰井乙木; 臟의 井穴은 陰井이라고 부르는데, 陰井은 木이니 여기서의 木은

乙木이고 乙은 陰木이다⁵⁾.

(3) 陽井庚金; 腑의 井穴은 陽井이라고 부르는데, 陽井은 金이니 여기서의 金은 庚金이고 庚은 陽金이다⁶⁾.

【各家註】

《本義》⁷⁾

[1-5] 十二經起於井穴이라

陰井爲木이라 故로 陰井木은 生陰榮火하고 陰榮火는 生陰俞土하고 陰俞土는 生陰經金하고 陰經金은 生陰合水라

陽井爲金이라 故로 陽井金은 生陽榮水하고 陽榮水는 生陽俞木하고 陽俞木은 生陽經火하고 陽經火는 生陽合土라

剛柔者는 卽乙庚之相配也라 十天에 所以自乙庚而言者는 蓋諸藏府穴이 皆始於井하야 而陰脈之井은 始於乙木하고 陽脈之井은 始於庚金이니 故로 自乙庚而言剛柔

5)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67, p.243.

6)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67, p.243.

7)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p.123-124.

4)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112.

之配하니 而其餘五行之配도 皆倣此也라

丁氏曰

剛柔者은 謂陰井木 陽井金이니 庚金爲剛 乙木爲柔오 陰榮火 陽榮水니 壬水爲剛 丁火爲柔오 陰俞土 陽俞木니 甲木爲剛 己土爲柔오 陰經金 陽經火니 丙火爲剛 辛金爲柔오 陰合水 陽合土니 戊土爲剛 癸水爲柔라하니라

蓋五行之道에 相生者는 母子之義요 相剋相制者는 夫婦之類라 故로 夫道皆剛하고 婦道皆柔는 自然之理也라 易曰 分陰分陽 迭用柔剛이라하니 其是之謂歟 [근저

《集注》⁸⁾

[1-5] 丁曰 經言 剛柔者는 謂陰井木 陽井金에 庚金爲剛이요 乙木爲柔라 陰榮火 陽榮水에 壬水爲剛이요 丁火爲柔라 陰俞土 陽俞木에 甲木爲剛이요 己土爲柔라 陰經金 陽經火에 丙火爲剛이요 辛金爲柔라 陰合水 陽合土에 戊土爲剛이요 癸水爲柔라

楊曰 五藏은 皆爲陰이니 陰井爲木 榮爲火 俞爲土 經爲金 合爲水라 六府爲陽이니 陽井爲金 榮爲水 俞爲木 經爲火 合爲土라 以陰井木으로 配陽井金하니 是陰陽夫婦之義라 故로 云 乙爲庚之柔요 庚爲乙之剛라 하니 餘並如此也니라

虞曰 所剋者爲妻는 謂孤陽不生孤陰不長이라 故井榮도 亦名夫婦剛柔相因而成也니라

《圖註》⁹⁾

[1-5] 陰陽者는 陰經陽經也라 井榮膈經合은 在陽經에 爲剛이요 在陰經에 爲柔也라 陰井木 陽井金에 庚金爲剛이요 乙木爲柔니 乙與庚合이라 陰榮火 陽榮水에 壬水爲剛이요 丁火爲柔니 丁與壬合이라 陽膈木 陰膈土에 甲木爲剛이요 己土爲柔니 甲與己合이라 陰經金 陽經火에 丙火爲剛이요 辛金爲柔니 丙與辛合이라 陰合水 陽合

土에 戊土爲剛이요 癸水爲柔니 戊與癸合이라 故로 大言하면 陰與陽이요 小言하면 夫與婦니 夫婦者는 十干配合이 是也라

《經釋》¹⁰⁾

[1-2] 藏屬陰하니 故曰陰이요 府屬陽하니 故曰陽이라 陰井屬木하고 次火次土次金次水라 陽井屬金하고 次水次木次火次土니 皆循五行相生之序也니라

[1-2] 按靈本輸篇에 藏井屬木하고 府井屬金이라하니 各有明文이로대 其餘榮俞는 所屬俱無明文이니 不知難經所本何書라 又按六府] 又多一原穴하니 其五者는 屬五行이로대 原穴은 抑推測而知之者耶아 自此以後로 針灸家遂相祖述矣니 與俞相近하야 宜同屬木하야 蓋所注爲俞 所過爲原하니 義亦相似也니라

[3] 言此乃剛柔配合之道也니라

[4] 陽金與陰木은 剛柔相合하니 爲夫婦也니라

[5] 餘는 指榮俞經合也니 倣此라 謂陰榮 丁火陽榮壬水는 皆以此推之라

[3-5] 按컨데 此段은 言陰陽配合之道하니 義頗精當이라

《懸解》¹¹⁾

[1-5] 陰井木이요 陽井金이니 義詳靈樞本輸라

《闡註》¹²⁾

[1-5] 此는 舉古經十變하야 言井榮膈經合하니라 俱以五行陰陽으로 爲配偶하대 但一陰一陽은 俱有相剋이니 是는 何意也오 言陽與陰配合은 取剛柔之義耳라 如陰井木 陽井金이니 是는 乙與庚合也라 乙爲

9)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孚書局, 1976, pp.7-8.

10)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p.45.

11)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64.

12)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67

8)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pp.265-266.

陰木 合庚之陽金이라 故曰 庚乃乙之剛이요 乙乃庚之柔也라 又於陰榮火 陽榮水니 是는 丁與壬合也라 丁爲陰火요 壬爲陽水라 陽臉木 陰臉土니 是는 甲與己合也라 甲爲陽木이요 己爲陰土라 陰經金 陽經火니 是는 丙與辛合也라 辛爲陰金이요 丙爲陽火라 陰合水 陽合土니 是는 戊與癸合也라 癸爲陰水요 戊爲陽土也니라 如此配合則剛柔相濟하고 然後에 氣血流通而不息하니 乃見人身經穴臟腑에 俱有五行配合하고 無時不交也니라

中峯云 觀此則三十三難에 庚之柔丙之柔之義가 益明矣라 可見近來註家도 不過逐章敷衍하고 未能通體貫徹也니라

《正義》13)

[1] 人身經脈은 起于井穴이라 五藏屬陰하니 從春夏而至秋冬이라 故로 陰井爲木이요 陰井木 | 生陰榮火하고 陰榮火 | 生陰俞土하고 陰俞土 | 生陰經金하고 陰經金 | 生陰合水라 六府屬陽하니 從秋冬而至春夏이라 故로 陽井爲金이요 陽井金 | 生陽榮水하고 陽榮水 | 生陽俞木하고 陽俞木 | 生陽經火하고 陽經火 | 生陽合土하니 此는 陰陽逆順之氣요 五行相生之序也라

[2-5] 剛柔者는 卽乙庚之配合也라 陰井爲木은 乙 | 陰木也요 陽井爲金은 庚 | 陽金也니 乙與庚合에 以陰木合陽金이라 故로 曰庚乃乙之剛이요 乙乃庚之柔也라 陽榮火 陰榮水는 是丁與壬合也요 陽俞木 陰俞土는 是甲與己合也요 陽經火 陰經金는 是丙與辛合也요 陽合土 陰合水는 是戊與癸合也니 此陰陽配合之道也라 其十干化合之義는 已詳三十三難註中하니 當參互觀之니라

按靈樞本輸篇에 論井榮俞經合 | 甚詳하니 欲求藏府經脈之血氣生死出入者는 不可不知也라 其義는 以營衛氣血 | 皆生于胃

府 水穀之精하야 營行脈中 衛行脈外하고 血行脈中 氣行脈外이나 然이나 血中有氣 氣中有血하니 陰陽互根하야 不可相離니 是脈內之血氣가 從氣衛而滲灌于脈外하고 脈外之氣血도 亦從孫絡而溜注于絡中하야 外內出入之相通也라 五藏 | 內合五行 故로 其俞五요 六府 | 外合六氣 故로 其俞六이니 蓋六氣生於五行하야 而有二火也니라 人身十二經脈은 合六藏六府之十二大絡及督脈之長強과 任脈之尾翳와 脾之大包하야 凡二十七脈之血氣가 出入於手足指之間하야 所出爲井 所溜爲榮 所注爲俞 所行爲經 所入爲合하니 此二十七脈之血氣는 從四肢通於藏府하고 而藏府中之血氣도 又從經脈繆處通於孫絡 而溜於絡脈하야 交相逆順而行하야 外而皮膚 內而經脈者也라 夫經脈有三百六十五穴會요 絡脈有三百六十五穴會하고 孫絡亦有三百六十五穴會하며 經脈寬大하고 孫絡窄小하며 經脈深而絡脈淺이라 故로 黃帝有五藏之所溜處 闊散之度 淺深之狀 高下所至之間也라 西醫言 過心化赤之血이 由脈管行遍으로 散諸微絲管하고 由微絲管之尾로 漸併漸粗하야 入迴血管하고 血入迴血管하면 其色變紫하야 與脈管交相逆順而行하야 至總迴管하고 過心入肺하야 呼出炭氣 吸入養氣하고 復化爲赤血者라하니 卽此義也라 西醫 | 知血之行諸脈絡 而不知所以能行者 | 氣爲之也니라 其井榮俞經合과 五行出入之道를 西醫昧而不明하니 是知其所當然 而不知其所以然也니라

《匯海》14)

[1-5] 編者 按컨데 本節說文諸家之注에 均係穿鑿하고 且作者 | 亦是附會하야 以陰陽配五行 五行合經井하니 雖有明文이나 然欲求真理어든 始終不可得一하니 故張氏山雷 | 亦有評議하니 張氏曰 陰經井穴爲木 陽經井穴爲金이라하니 古人雖有明文이

13)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118-120.

14)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pp.146-147.

나 然欲求其所以爲木爲金之實在理由어늘 終是百思而不得其解라 卽如上章所謂歲始於春하고 日始於甲하고 以井穴爲經穴所自始하야 而謂其取義於萬物始生이라하니 立論 似亦有理나 然이나 止能合於藏井之木 而又何解於府井之金면 則又理之所必不通者하니 可見本輸篇陰木陽金之分에 本是無謂之至라 難經此章 則又因其是一木一金 而遂以五行相生 推及榮俞經合이니 蓋亦理想云이나 然이나 必無根據可說이나 洞溪謂其推測知之 差能窺見其隱 要之以井榮俞經合有五者之名 而可以分屬五行 則六陽經多一原穴 又將何以說之 洞溪遂謂原與俞近宜同屬木 以一時之臆見 而竟可呼牛呼馬 惟吾所欲 尤其可笑 此土豪劣紳武斷鄉曲之故智 著作家當無是理 壽頤竊謂經穴甚多 然古人於每一經中 提出數穴 而有此井榮俞原經合之名者 蓋經脈循行 其道甚遠 就中必有抑揚頓挫之處 因指此數者 以爲關節之所在 果何有五行可言 本輸篇陰井木陽井金之木金二字 已是疣贅 則難經又以五者分隸五行 更爲多事 何如一併芟夷 斬絕葛藤之爲愈乎 近人頗有昌言廢除醫學中之五行者 頗固謂天生萬物 皆在此五者之中 惟人秉天地賦畀以生 隱隱中自有此五者之條理 決不可一概廢止 屏而不講 獨至於此類之無理分配 空言生剋 反以陷後學於迷惘中者 則自有不可不廢棄之必要 所謂除荊棘而闢康衢 固亦學者實事求是 當務之急也

《古義》¹⁵⁾

[1-5] 按亦承上問하니 井旣爲諸穴之首면 則其相配五行에 亦當同하나 然이나 今陰井爲木 陽井爲金이라하니 則各同而類異焉 且以井爲木은 則所謂發生之意니 固當其理이나 若以井爲金은 則其於爲始之義에 其理不通者는 何오 答乃謂是는 剛柔之事니 則五行十幹 夫婦配耦之義니 而陽干屬夫行하고 陰干屬婦行하니 表裏二經에

離而縱하면 則爲相生이요 合而橫하면 則爲相制니 實로 知聖人用針予奪之妙라 揣在斯符焉 惜乎라 輓近道汚하야 而世乏其術이라 靈樞曰 五藏五俞니 五五二十五俞요 六府六俞니 六六三十六俞라하니 關手少陰者는 蓋與厥陰으로 同治也니라 與三十二篇에 言 肝肺乙甲 夫婦相配之義으로 同矣라 然이나 彼는 直以藏府言하고 此는 卽以穴俞言하니 厥旨 無異也라

《哀腋》¹⁶⁾

[1-5] 滑氏曰 十二經起於井穴하니 陰井爲木이라 故로 陰井木은 生陰榮火하고 陰榮火는 生陰俞土하고 陰俞土는 生陰經金하고 陰經金은 生陰合水라 陽井爲金이라 故로 陽井金은 生陽榮水하고 陽榮水는 生陽俞木하고 陽俞木은 生陽經火하고 陽經火는 生陽合土라 丁氏曰 剛柔者는 謂陰井木 陽井金에 庚金爲剛이요 乙木爲柔라 陰榮火 陽榮水에 壬水爲剛이요 丁火爲柔라 陰俞土 陽俞木에 甲木爲剛이요 己土爲柔라 陰經金 陽經火에 丙火爲剛이요 辛金爲柔라 陰合水 陽合土에 戊土爲剛이요 癸水爲柔라 蓋五行之道에 相生者는 母子之義요 相剋相制者는 夫婦之類라 故로 夫道는 皆剛하고 婦道는 皆柔하니 自然之理也라 易曰 分陰分陽 迭用柔剛이라하니 其是之謂歟인저

【考察】

본 難에서는 井榮俞經合의 陰陽配合에 關하여 論하였다.

陰井은 木에서 始作하고 陽井은 金에서 始作하는 理由를 剛柔之事로 說明하였다. 여러 註家들의 說明을 整理하면 표와 같다.

以上에서 引用한 것과 같이 여러 注家들이 서로 비슷한 意見을 보였는데, 陽經이 剛이 되고 夫道이며 陰經은 柔가 되고 婦道가 되는데, 이는 相剋之道라고 하였

15)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5.

16) 加藤宗博, 盧經哀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p.43-44.

《本義》	① 剛柔는 乙庚之相配인데 十干에서 乙庚부터 말하는 것은 모든 藏府穴이 井에서 始作하여 陰脈의 井은 乙木에서 始作하고 陽脈의 井은 庚金에서 시작하므로 乙庚으로 剛柔之配를 말하니 나머지도 이와 같다고 하였다. ② 五行之道에서 相生은 母子의 義이고 相剋相制는 夫婦와 같은 것이므로 夫道는 剛하고 婦道는 柔한 것이 自然의 理致이라고하여 易에서 말한 分陰分陽 迭用柔剛와 연관시켜 설명함.
《集注》	《本義》와 비슷한 뜻을 보임.
《圖註》	① 《本義》와 비슷한 뜻을 보임. ② 大言하면 陰과 陽이요 小言하면 夫과 婦니 夫婦라는 것이 十干配合이라고 함.
《經釋》	陽金과 陰木은 剛柔가 相合하여 夫婦가 된 것이라고 함.
《闡注》	① 中峯이 이르기를 三十三難에서 庚之柔 丙之柔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說明되어 있다고 함. ② 近來註家들도 逐章敷衍에 지나지 않고 通體貫徹하지 못했다고 하여 疑心을 보임.
《正義》	① 이것이 陰陽配合의 道로서 十干化合의 義는 三十三難註中에 詳細하게 보이므로 參考할 것을 當付하여 《闡註》와 비슷한 뜻을 보임. ② 西洋醫學의 血液循環概念을 導入하고 氣가 血液循環의 原動力이 된다고 함.
《匯海》	本節說文의 註家の 註에서 모두 穿鑿이 보이고 작자또한 附會하였으므로 眞理를 알기가 어렵다고 하여 여러 註家들의 意見에 反對함.
《古義》	《本義》와 비슷한 뜻을 보임.
《衷腋》	《本義》와 비슷한 뜻을 보임.

다.
이에 따라 五行과 十干을 配屬하면 아래 표와 같다.

	陰經	陽經	十干
井	乙木	庚金	乙庚
榮	丁火	壬水	丁壬
俞	己土	甲木	甲己
經	辛金	丙火	丙辛
合	癸水	戊土	戊癸

五俞穴의 五行 十干 配合表

이러한 配屬에 대하여 滑壽, 王九思, 張世賢, 徐大椿, 黃元御, 丁錦, 葉霖, 滕萬卿, 加藤宗博 등은 모두 肯定하였다. 그러나 蔡陸仙은 諸家들이 陰經이 木에서 始作하고 陽經이 金에서 始作하는 理由를 說明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指摘하고, 五俞穴을 五行에 맞추는 것은 억지가 있는 것으로서 廢止해야 하며 實事求是해야 한다고 強하게 跌打하였다.

한편 《正義》에서 葉霖은 西洋의 科學思想이 들어오던 時代의 影響을 받아 氣血의 흐름을 血液循環과 聯關하여 說明하려 하였고, 血液循環의 原動力을 氣라고 보았다.

어쨌든 여러 注家들은 蔡陸仙이 이른바

와 같이 陰經이 木에서 始作하고 陽經은 金에서 始作하는 理由를 明快하게 說明하지 못하였는데, 《闡註》에서도 中峯의 말을 引用하여 이르기를 近來註家들도 逐章敷衍에 지나지 않고 通體貫徹하지 못했다고 하여 疑心을 提起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本難에서는 陰經이 木에서, 陽經은 金에서 시작하는 理由를 剛柔之事로 說明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剛柔之事를 明確하게 理解하는데에는 陰井에 왜 木이 配屬되는지 陽井에는 왜 金이 配屬되는지를 說明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더욱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第六十五難 (井穴과 合穴 出入의 意義)

六十五難曰 經言 所出爲井이요 所入爲合⁽¹⁾이라하니 其法은 奈何

然이라 所出爲井이니 井者 東方春也⁽²⁾요 萬物之⁽¹⁾始生이라 故로 言所出爲井也⁽²⁾라하니라 所入爲合이니 合者는 北方冬⁽³⁾也⁽³⁾요 陽氣入藏⁽²⁾이라 故로 言所入爲合也⁽⁴⁾라하니라

【解釋】

六十五難에 이르기를 經에 말하기를 '所出爲井이요 所入爲合이라'라고 하였는데

그 理致는 어떠합니까?

답이다. 所出은 井이 되므로 井은 東方春이고 萬物이 始生하는 곳이 된다. 그러므로 所出爲井이라고 한다. 所入이 合이 되므로 合은 北方冬이고 陽氣가 들어가는 곳이 된다. 그러므로 所入爲合이라고 한다.

【出處】

‘所出爲井’以下로 井榮俞經合에 關한 內容은 《靈樞》의 <九鍼十二原篇>에 보인다.

【校勘】

① 之; 《圖註》, 《闡註》에는 ‘之’字가 없다.

② 也; 《圖註》에는 ‘也’字가 없다.

③ 冬; 《匯海》에는 ‘東’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所出爲井 所入爲合; 出은 經氣가 出發하는 곳을 가리키며 井穴이고 모두 指趾의 末端에 있다. 入은 經氣가 深部로 向하는 곳을 가리키며 合穴이고 모두 肘膝關節近處에 있다¹⁷⁾.

(2) 陽氣入藏; 冬主藏하여 陽氣가 在內하므로 陽氣入藏이라 하였다¹⁸⁾.

【各家註】

《本義》¹⁹⁾

[1-4] 此以經穴流注之始終言也라

《集注》²⁰⁾

[1-4] 楊曰 奈何는 猶如何也라

丁曰 人之陽氣는 隨四時而出入이라 故로 春氣在井 夏在榮 秋在經 冬在合이라 其所取氣穴은 皆隨四時而刺之也라

楊曰 春夏主生養이라 故로 陽氣在外라 秋冬主收藏이라 故로 陽氣在內하니 人亦法之라

《圖註》²¹⁾

[1-4] 井者는 出泉之處니 涓涓不絶하여

而無有餘不足이라 合者는 聚合之處니 如水歸海하여 從淺以入深也니라 東方은 乃四方之始요 春은 乃四時之始요 井은 乃榮膞經合之始라 故로 曰井者는 東方春也라 하니 萬物當春而始生하고 經水始出하니 所以謂之井也라 北方은 乃四方之終이요 冬은 乃四時之終이요 合은 乃井榮膞經之終이라 故로 曰合者는 北方冬也라하니 陽氣於藏而伏藏하고 經水所入이니 所以謂之合也라 潔古云所出爲井은 似寅하니 寅之初氣之始에 陽氣尙弱이라 所入爲合은 陽氣入藏하여 能隨陰而入이라 故로 經言呼者는 同陽出하고 吸者는 隨陰入이라하니라

《經釋》²²⁾

[1] 詳靈本輸篇하니 如肺出於少商爲井이요 入於尺澤爲合이 是也라

[2] 井屬木은 春爲木令故也라

[3] 合屬水는 冬爲水令故也라

[4] 此以時令之所屬으로 配之經穴하여 以明出入二字之義하니 亦與前六十三難으로 義同이라

《懸解》²³⁾

[1-4] 萬物出於春하니 井之義也요 陽氣入於冬하니 合之義也라

《闡註》²⁴⁾

[1-4] 此言井榮膞經合은 如春夏秋冬之周

18)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67, p.246.

19)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124.

20)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p.266.

21)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學書局, 1976, p.8.

22)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p.45.

23)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64.

24)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67

17)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114.

而復始와 東南西北之循環無端하야 自井而生發하고 至合而入藏하니 如天地一歲而有四時하고 一日亦有四時하야 人身隨其氣而運行이라 所以一呼一吸에 陰陽無不周徧也라

《正義》25)

[1-4] 經言은 靈樞本輸篇也라 井榮俞經合은 如春夏秋冬之周而復始와 東南西北之循環無端也라 春夏主生養하니 陽氣在外하고 秋冬主收藏하니 陽氣在內라 井屬春이라 故로 自井而生發하고 合屬冬이라 故로 至合而入藏하니라 如天地一歲 而有四時하고 一日亦有四時하야 人身隨其氣而運行이라 所以一呼一吸에 陰陽無不周徧也니라

按本輸篇言 肺之井木은 出手大指內側之少商穴 溜於魚際爲榮 注於太淵爲俞 行於經渠爲經 入於尺澤爲合하고 心之井木은 出手中指之端 心包絡經中衝穴 溜於勞宮爲榮 注於大陵爲俞 行於間使爲經 入於曲澤爲合이라 心之井榮俞經合 而行包絡之經者 是 何也오 蓋心注血하고 包絡注脈하니 君相之相合也라 心與包絡은 血脈相通하야 心藏所出之血氣는 間行於手少陰之經과 手厥陰之經也라 肝之井木은 出足大指之端大敦穴 溜於行間爲榮 注於太衝爲俞 行於中封爲經 入於曲泉爲合하고 脾之井木은 出足大指內側隱白穴 溜於大都爲榮 注於太白爲俞 行於商丘爲經 入於陰之陵泉爲合하고 腎之井木은 出足心之湧泉穴 溜於然谷爲榮 注於太谿爲俞 行於復溜爲經 入於陰谷爲合하니 此五藏之井榮俞經合也라 膀胱之井金은 出足小指之端至陰穴 溜於通谷爲榮 注於束骨爲俞 過於京骨爲原 行於崑崙爲經 入於委中爲合하고 膽之井金은 出於足小指次指之端竅陰穴 溜於俠谿爲榮 注於臨泣爲俞 過於丘墟爲原 行於陽輔爲經 入於陽之陵泉爲合하고 胃之井金은 出足大指內次指之端厲兌穴 溜於內庭爲榮 注於陷谷爲俞

過於衝陽爲原 行於解谿爲經 入於下陵爲合이라 三焦者는 上合手少陽하니 其井金은 出手小指次指之端關衝穴 溜於液門爲榮 注於中渚爲俞 過於陽池爲原 行於支溝爲經 入於天井爲合하고 而三焦下俞 出於足大指之前委陽穴하니 是足太陽之絡이라 蓋三焦之氣出於腎하야 遊行於上中下하야 其斜者爲絡이라 入絡膀胱하고 直者爲經이니 卽手少陽也라 故로 三焦之俞有二焉이라 小腸之井金은 出手小指之端 少澤穴 溜於前谷爲榮 注於後谿爲俞 過於腕骨爲原 行於陽谷爲經 入於小海爲合하고 大腸之井金은 出於手大指次指之端 商陽穴 溜於本節之前二間爲榮 注於本節之後二間爲俞 過於合谷爲原 行於陽谿爲經 入於曲池爲合하니 此六府之井榮俞原經合也라 夫藏府之井이 起於木金者는 木金乃生成之始終也이라 五藏藏精하야 其氣皆陰이나 然이나 化氣必生於陽이라 故로 五藏雖陰 而其起恒同起於少陽之生木이라 六府致用하야 其氣皆陽이나 然이나 氣盛必歸於精이라 故로 六府雖陽 而其氣爲成이 皆起於西하야 成說物之兌金이니 是以로 藏井爲木이요 府井爲金也라 生氣在藏하고 成氣在府는 如四時之春秋이니 此陰陽之定理요 鍼法所必究也라 然이나 祇節經文之大略이니 其經穴部位分寸은 須詳考銅人圖像하면 庶不致誤리라

《匯海》26)

[1-4] 滑伯仁曰 此以經穴流注之始終言也라

張天成注 井者는 出泉之處니 涓涓不絕하야 而無有餘不足也라 合者는 聚會之處27)니 如水歸海하야 從淺以入深也라 東方은 乃四方之始요 春은 乃四時之始요 井은 乃榮俞經合之始라 故로 曰井者는 東方春也라하니 萬物當春而始生하고 經水始出하

26)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pp.147-148.

27) 合者聚會之處; 《圖註難經脈訣》에는 “合者聚合之處”로 되어 있다.

25)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120-121.

니 所以謂之井也라 北方은 乃四方之終이요 冬은 乃四時之終이요 合은 乃井榮俞經之終이라 故로 曰合者는 北方冬也라하니 陽氣於冬而伏藏하고 經水所入이니 所以謂之合也라

日醫藤萬卿注 此篇은 雖以井合出入으로 問之하나 其實則明五俞血氣에 各有淺深之量이라 井象谷井하야 而泉源所出하니 其血氣至微하고 榮象水之波하야 而血氣少溜하고 俞象水之竇하야 而盈科湛澹하고 經象水之流하야 而奔波激浪 蕩漾泱泱하고 合象水之海하야 而百川競歸 沸鬱溟渤하니 由是觀之컨대 凡刺井榮하면 則鍼貴輕淺하고 刺經合하면 則鍼貴重深하니 若夫俞者는 在井合之中間²⁸⁾이니 其血氣無過不及之偏이니 則使夫冲和之氣運行其經中하야 乃所謂三焦之氣 而所以名原者라 然이나 本篇唯言春冬二時陰陽升降하야 未曾及此者하니 聊示一義例耳니라

張山雷注 此所以出은 比春令之發生하고 所入은 比冬令之收藏하니 於出入二字之義에 不可謂其不是이나 然이나 經又言所流爲榮 所注爲俞 所過爲原 所行爲經이라하니 則將何以說之오 要知此等議論은 純是鑿空이요 無關於生理之眞이니 必不可信이라

《古義》²⁹⁾

[1-4] 按此篇은 雖以井合出入으로 問之하나 其實則明五俞血氣에 各有淺深之量이라 井象谷井하야 而泉源所出하니 其血氣至微하고 榮象水之波하야 而血氣稍溜하고 俞象水之竇하야 而盈科湛澹하고 經象水之流하야 而奔波激浪 蕩漾泱泱하고 合象水之海하야 而百川競歸 沸鬱溟渤하니 由是觀之컨대 凡刺井榮하면 則鍼貴輕淺하고 刺經合하면 則鍼貴重深하니 若夫俞者는 在井合之中間이니 其血氣無過不及之偏이니 則使夫冲和之氣로 運行其經中하야 乃

所謂三焦之氣 而所以各原者라 然이나 本篇唯言春冬二時 陰陽升降하야 未曾及此者하니 聊示一義例耳니라

《哀腋》³⁰⁾

[1-4] 人之井榮俞經合 以比四時之生長化收藏하니 是以로 井者應春하고 於方爲東하니 萬物以春出生이라 故로 言所出爲井也라하니라 合者應冬하고 於方爲北하니 陽氣以冬入藏이라 故로 言所入爲合也라하니라 滑氏曰 此以經穴流注之始終言也라

【考察】

本難에서는 所出爲井과 所入爲合의 意味를 四時에 譬喩하여 說明하였다.

所出爲井과 所入爲合

以上과 같이 대부분의 注家들이 四時나 方位, 또는 水의 흐름에 譬喩하여 說明하였다. 그러나 蔡陸仙은 《滙海》에서 藤萬卿과 張山雷의 注를 引用하여 이와는 다른 意見을 보였는데, 張山雷는 出入의 意味만을 說明하고 나머지인 流·注·行의 意味는 說明하지 않았으니 잘못된 것이며 生理와는 無關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筆者는 說明이 不足하다고 하여 理論自體를 無視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서 張山雷의 意見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本難에서 注目할 것은 出流注行入의 흐름이 陽經의 循行方向과는 같지만 陰經의 循行方向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本難의 原文에서는 “陽氣入藏”이라고 하여 陽氣의 흐름이라고 하였는데 經絡의 循行方向과 一致하게 흐르는 것은 營氣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陽氣가 營氣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井榮俞經合에서의 出流注行入의 흐름은 經絡에서 흐르는 營氣가 아닌 다른 어떤 氣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더욱 研究

28) 問; 《難經本義》에는 “間”으로 되어 있다.

29) 藤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5.

30) 加藤宗博, 盧經哀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44.

集注	사람의 陽氣는 四時를 따라서 出入하는데 春에는 氣가 井에 있고 夏에는 榮, 秋에는 經, 冬에는 合에 있다고 하여 四時에 譬喩하여 說明함.
圖註	'井은 出泉하는 곳이니 涓涓不絶하여 有餘不足함이 없고, 合은 聚合하는 곳이니 水가 海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 從淺以入深한다. 東方은 四方之始이고 春은 四時之始이며 井은 榮膺經合之始라'고 하여 水의 흐름과 方位 및 四時에 譬喩하여 說明함.
經釋	《集注》, 《圖註》와 비슷한 뜻을 보임.
懸解	《集注》, 《圖註》와 비슷한 뜻을 보임.
闡注	《集注》, 《圖註》와 비슷한 뜻을 보임.
正義	《集注》, 《圖註》와 비슷한 뜻을 보임.
匯海	① 張天成注; 《集注》, 《圖註》와 비슷한 뜻을 보임. ② 日醫藤萬卿注; 《古義》의 內容을 引用함. ③ 張山雷는 出과 入의 뜻은 否認할 수 없으나 나머지 流注行의 뜻을 說明하지 못하였고, 이 議論에는 穿鑿이 있으며 生理의 理致와는 無關하므로 믿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反對함.
古義	'이 篇은 井合出入으로 質問하였는데 事實은 五俞血氣에 각기 淺深之量이 있다. 이 篇에서 오직 春冬二時의 陰陽升降으로만 說明하고자 하였으니 '例를 든 것 뿐이라'고 함.
哀腋	《集注》, 《圖註》와 비슷한 뜻을 보임.

하여야 할 것이므로 疑問으로 남겨둔다.

요컨대 이 難에서는 春冬의 自然現象으로 譬喩하여 經脈의 氣는 指端에서 發生하여 肘膝關節에서 比較的 작은 川流를 이루고 大河에 流入하여 匯合하는 內容을 說明하였다. 井榮膺經合은 四季節인 春夏秋冬의 周而復始함과 東西南北의 循環無端함에 잘 譬喩되는데 春夏는 生長을 主하므로 陽氣가 在外하고 秋冬은 收藏을 主하므로 陽氣가 在內한다. 井은 春에 屬하므로 井으로부터 生長하고 合은 冬에 屬하므로 合에서 入藏한다.

IV. 結論

《難經》 중에서 俞穴에 대해 言及하고 있는 第六十四難에서 第六十五難까지의 內容은 六十四難에서는 井榮膺經合의 陰陽配合에 關하여, 六十五難에서는 所出爲井과 所入爲合의 意味를 四時에 譬喩하여 論하였는데, 《內經》의 俞穴理論을 더욱 深化시켜 繼承說明하고 있다.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

1. 陰經이 木에서, 陽經은 金에서 始作한다는 것은 《內經》에 있는 內容으로서,

여기서는 進一步하여 그 理由를 剛柔之事로 說明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剛柔之事를 明確하게 理解하는데에는 陰井에 왜 木이 配屬되는지 陽井에는 왜 金이 配屬되는지를 說明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明快하게 答하지 못하여 疑惑을 불러 일으키며 이는 더욱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2. 《正義》에서 葉霖은 西洋의 科學思想이 들어오던 時代의 影響을 받아 氣血의 흐름을 血液循環과 聯關하여 說明하려 하였고, 血液循環의 原動力을 氣라고 보았다.

3. 所出爲井과 所入爲合의 意味에 대하여는, 春冬의 自然現象으로 譬喩하여 經脈의 氣는 指端에서 發生하여 肘膝關節에서 比較的 작은 川流를 이루고 大河에 流入하여 匯合하는 內容을 說明하였다. 井榮膺經合은 四季節인 春夏秋冬의 周而復始함과 東西南北의 循環無端함에 잘 譬喩되는데 春夏는 生長을 主하므로 陽氣가 在外하고 秋冬은 收藏을 主하므로 陽氣가 在內한다. 井은 春에 屬하므로 井으로부터 生長하고 合은 冬에 屬하므로 合에서 入藏한다.

4. 六十五難에서 注目할 것은 出流注行入의 흐름이 陽經의 循行方向과는 같지만 陰經의 循行方向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本難의 原文에서는 “陽氣入藏”이라고 하여 陽氣의 흐름이라고 하였는데, 經絡의 循行方向과 一致하게 흐르는 것은 營氣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陽氣가 營氣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井榮俞經合에서의 出流注行入의 흐름은 經絡에서 흐르는 營氣가 아닌 다른 어떤 氣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더욱 研究하여야 할 것이므로 疑問으로 남겨둔다.

5. 以上에서 말한 六十四難과 六十五難의 內容은 《內經》에서 說明하지 못한 內容을 解釋하려 한 것으로, 《內經》보다 進一步한 論述을 보였으나 未洽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더욱 깊은 研究를 必要로 한다.

參 考 文 獻

1.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9.
2.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
3.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관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4.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
5.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6.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67.
7.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8.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9.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孚書局, 1976.
10.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11.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2.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13.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14.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15. 加藤宗博, 盧經衰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